

## 본지 재창간 4주년기념 특별인터뷰 김인만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지난 26일 오전 11시 본지 사옥에서 개최된 포천신문 발행인 초청 '재창간 4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김인만 포천상공회의소 회장은 포천에 대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각 지역마다 대기업이 유치돼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중소기업활성화와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포천지역에도 대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포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호간 기술을 교류하고 유기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인재양성 및 고용창출에도 한 몫을 할 것이라고 효율적인 지원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지역에 소재한 무등록 공장에 대해 김 회장은 포천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허기가 나지 않는 불법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기존에 허가를 득한 업체에게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포천지역은 오래전부터 내열 및 대기, 폐수배출시설과 관련된 업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재창간 4주년을 맞이하는 포천신문이 포천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보도, 독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기업인들을 위한 정부시책 홍보 등 유익한 정보와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밤 빠른 보도로 지금보다 더 버거운 신문사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본지 최호열 발행인 초청 김인만 포천상공회의소 회장과 인터뷰 내용이다. (편집자주)

# “포천에도 大企業 유치해 경제활성화 도모해야” “기업인들을 위한 정부시책 報道에 앞장서주길”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 기념으로 본지 崔鶴烈(右) 발행인이 金仁晩(左) 포천상공회의소 회장을 초청해 포천시 경제활성화방안 등 포천시 발전에 관하여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호열 발행인: 포천상공회의소 초대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늦게나마 취임소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만 회장: 포천상공회의소는 2004년 1월 20일 경기도로부터 설립인가를 득한 후 2월11일에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지난 4월29일에는 초대 회장·임원·의원 취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포천상공회의소 설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열원하였기에 포천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참과 많은 지지로 지금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포천상공회의소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회원사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청취, 제안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호열 발행인: 많은 기업인들이 포천상공회의소 설립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포천상공회의소가 설립된 이후 포천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만 회장: 포천상공회의소 설립으로 인한 기업경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설명회,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앞장 설 수 있게 되었으며, 조사, 연구, 건의사업으로 지역내 경기전망을 비롯한 각종 조사를 통

해 기업의 장단기 사업계획에 일조와 조사자료를 연구 분석, 정부의 정책수립 자료로 제공하며, 또한 해외 무역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구성, 경제사절단 유치와 원산지증명서 비롯한 일반 무역관계 증명 발급등 급변하는 세계 경쟁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실시하게 될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시행하여 기능인력 초동학생부터 직장인, 일반인, 공무원등에 까지 사무지역분야의 지식과 기술습득을 갖추도록 보급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호열 발행인: 최근 유가상승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포천지역경제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만 회장: 지금 경제는 대외적으로 이라크전쟁 등 국제원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국내의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유가 상승으로 원자재가격폭등으로 채산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한편, 내수경기의 장기불황으로 기업인들의 투자심리가 불안한 가운데 극도로 위축되어 투자기피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천지역의 기업들은 어려운 난관을 신제품출시와 해외시장개척으로 수출활로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완화와 공과금 감면 등으로 얼룩진 기업인의 마음을 바로 펴주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호열 발행인: 포천지역 경

제난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만 회장: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기는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의 매출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데 비해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비용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수익구조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판매부진으로 어음결제가 많아지고 로 교통체증 유발 및 교통사고의 증가, 교통불편 초래 등 인적·물적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기업체의 물류 소용돌이 원할하지 않아 물류비용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현대화된 교통운송체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다행히 지하철 참동차량까지의 이전 대상부지 선정이 어려워 진척이 없음을 인지한 포천시가 노원구청과 긴밀한 협의로 상호 WIN-WIN 전략에 의거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상에서도 포천 전철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면 열과 성의를 다해 참여하여 기업의 물류운송체제를 확립하는데 일조 할 것입니다.

▶최호열 발행인: 포천지역 무등록 공장에 대한 포천상공회의소의 입장과 근본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만 회장: 2002년 12월에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에 의거 기존의 200㎡에서 500㎡이상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 지역의 기업

발전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인재양성 및 고용창출에도 한몫을 할 것이므로 효율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최호열 발행인: 포천상공회의소의 포천전철 유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만 회장: 포천시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 유발 및 교통사고의 증가, 교통불편 초래 등 인적·물적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기업체의 물류 소용돌이 원할하지 않아 물류비용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현대화된 교통운송체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다행히 지하철 참동차량까지의 이전 대상부지 선정이 어려워 진척이 없음을 인지한 포천시가 노원구청과 긴밀한 협의로 상호 WIN-WIN 전략에 의거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상에서도 포천 전철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면 열과 성의를 다해 참여하여 기업의 물류운송체제를 확립하는데 일조 할 것입니다.

▶최호열 발행인: 포천지역 무등록 공장에 대한 포천상공회의소의 입장과 근본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만 회장: 2002년 12월에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에 의거 기존의 200㎡에서 500㎡이상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 지역의 기업

체는 거의 대부분이 200㎡에서 400㎡미만인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으로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으며 각종 서류 제출 시에도 공장등록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현재 무등록으로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 제조업체 현황 파악에 관계기관 및 본 상의에서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허기가 나지 않는 불법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기존에서 허가를 득한 업체에게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포천지역은 오래전부터 내열 및 대기, 폐수배출시설과 관련된 업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최호열 발행인: 포천상공회의소가 포천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법적기구로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만 회장: 포천상공회의소는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법정 민간단체입니다. 모든 업종의 대·중소기업을 총 망라하여 상공업자 모두를 회원으로 하는 종합경제단체로서 경제계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사무기능의 보급 및 우수한 기능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전자상거래관리

사, 전산회계운용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한자시험 등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을 2005년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기업의 경영전반에 걸친 컨설팅과 실무담당자의 전문화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설명회,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여 능력개발에 앞장설 것이며 기업인이 원하는 중점사업을 꾸준히 발굴, 지역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PL공제 보험가입 및 SMERP보급사업과 Single PPM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선도를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상공장려관 및 특산물 판매장을 설립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진열, 국내 관광상품 또는 외국 바이어 유치로 포천관광명소로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고층처리 상담, 근로자 복지관, 회의실 및 교육장으로 건립하여 포천지역 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제협력사업으로는 국내의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인력확보 문제 등으로 기업이 중국 및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고 있어 장래 국가문제까지까지 위기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진 경제 견학으로 다양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우선순위를 높여, 원자재 및 국내 중 소기업에 생산되는 제품 판매를 돕고 있어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 불법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기존에서 허가를 득한 업체에게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포천지역은 오래전부터 내열 및 대기, 폐수배출시설과 관련된 업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최호열 발행인: 포천상공회의소가 포천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법적기구로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만 회장: 포천상공회의소는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법정 민간단체입니다. 모든 업종의 대·중소기업을 총 망라하여 상공업자 모두를 회원으로 하는 종합경제단체로서 경제계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사무기능의 보급 및 우수한 기능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전자상거래관리

확입니다.

▶최호열 발행인: 포천신문이 지역언론매체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만 회장: 포천의 대변지로서 항상 지역 언론문화 발전에 노력하시는 포천신문 발행인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포천신문의 재창간4주년이란 시간은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비약적 성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천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보도, 독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기업인들을 정부시책 홍보 등 유익한 정보와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포천신문사의 빠른 보도로 지금보다 더 나은 신문사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최호열 발행인: 포천시민과 포천기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만 회장: 포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성장, 발전을 돕고 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지역내의 상공인들이 자발적인 회원으로 가입하여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상공회의소의 사업은 오직 회원업체에서 납부 해 주시는 상공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포천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뒷받침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에 많은 포천시민과 학생 및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각 종목별로 시행하는 기능보급을 널리 알리도록 포천신문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社 告**

### 불우이웃돕기 창구개설

본지는 연중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개설하여 시민여러분의 정성어린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접수된 성금 및 물품은 필요로 하는 사회 복지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이웃에게 전달하고 전달여부를 본란에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창구운영은 본지 조사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031-542-1507 불우이웃돕기 창구 계좌번호 농협 585-02-172934(포천신문)

**포천신문**

신동명케미칼

## 화일시트, 도무송 가공 전문 (주) 신동명케미칼

###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기업




(주) 신동명케미칼은 미래지향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해 최첨단 기기와 최고의 기술력으로 고품격 제품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www.sdm-chemical.com

▶ 본사 02-2297-2174

▶ 공장 TEL 031-543-4654 · FAX 031-543-4653

▶ 대표이사 양 상 모